

'한국학으로서의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로서의 한국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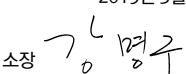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이후 아시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 안에서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지식이 각 사회가 처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하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아시아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시아 연구와 다른 지향성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함께 시작된 유럽의 아시아 연구와 냉전의 심화와 함께 시작된 미국 중심의 아시아 연구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연구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선도적 아시아 연구를 위한 고민의 결과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한국학으로서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로서 한국학'이라는 인식론적 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의 '펼침'(extension)으로써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의 '겹침'(folding)으로써 한국연구를 새로운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펼침의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개별 연구자들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아시아적 맥락으로 확장해서 연구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겹침의 차원에서는 아시아의 지역 연구자들이 세계 질서의 변동이란 외부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의 선도적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펼침과 겹침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연구과제 개발로 지식 생산의 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으며, 다양한 학술행사 및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아시아 시대의 대중화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아시아연구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선도적 지식을 생산하는 아시아 연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온 아시아 시대를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비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취약한 국내의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하여,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의 요청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성장, 발전에 관련된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들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연구센터

동북아시아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상정한다. '한국과 북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과의 중점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센터는 신흥지역연구와 기반구축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4년 8월 신흥지역연구 1단계 2년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2단계 3년간의 사업을 출발하였고, 메콩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반구축사업팀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일반공동연구팀으로 전환해 본 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센터는 구 소련권 유라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콜로키엄 개최를 비롯 국내외 연구자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 및 발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향후 서아시아 센터와 남아시아 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제 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관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에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연구 사업이 선발되어 수행하고 있다.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와 규범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중 관계 연구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연구자들에게 학술교류와 정책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의 발전모형을 선진국의 발전과정과 비교 분석하고,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협력 및 대안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노력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과 국제적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며,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자료센터의 구축과 아시아 서베이 및 지표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기초자료센터 구축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메타데이터를 축적할 뿐 아니라, 아카이브와 협력하여 기초연구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은 동독리시아와 중국의 동북 3성,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이동과 흐름'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다양한 구성단위를 간 교류협력의 실체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이 처해있는 주요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협력 프로그램에서는 공간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시아적 환경관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ELD 국제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하에서 아시아 5개 지역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연구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의 협력과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주제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도시를 보는 창으로써 '병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틀을 설정하여 현재 동아시아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연구센터

동북아시아센터
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소수자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성 연구

동남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 소비자연구 및 메콩유역 개발 환경협력 거버넌스

신흥지역 연구사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일반연구 지원사업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중앙아시아센터
중국의 부상으로 본 중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 생활문화 아카이빙

토대 연구
현지조사를 통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총서 및 DB 구축

외부 연구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와 전환

주제 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
동아시아 창의세대, 한·중·일 청년들의 삶과 고뇌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중국협력사업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협동조합의 혼종성과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 연구

일반연구 지원사업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국제적 위험 연구

SSK 사업
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미-중관계 프로그램
선도국과 부상국의 인식과 작용 및 중요성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역동성 탐색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아시아 국가들간 서베이 및 지표 개발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동아시아 해역 초국경 이동과 흐름

환경협력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관련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관련 기초 연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인재양성사업

아시아연구소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 전국 대학원생 포럼, 아시아연구 박사 논문상,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연구 인턴십,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한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부터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 한국학 강의를 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실시간 화상강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3개교 공동강의, Moving Class 등의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4년간 아시아와 유럽 8개교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37개의 강좌를 개설했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핵심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및 국가 별 최우수 명문대학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접촉하고 결합하며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육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출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정기 학술지인 <아시아리뷰>를 연 2회 발간하여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연구자 및 대중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 국문 시리즈와 영문 시리즈(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교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가 있으며, 이외에도 아시아연구소가 기획한 출판물들이 있다.

아시아리뷰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아시아연구소 총서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아시아연구소 기획



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여 아시아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학술행사 공지는 물론 아시아 관련 연구 소식을 공유하고 대중에게 아시아 연구의 다양한 성과를 알리는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소식
격월간으로 온라인 뉴스레터인 <아시아연구소 소식>을 발행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소 소식>은 단순한 행사 홍보가 아닌 학술행사 후기와 인터뷰, 현장답사 후기 및 다양한 기고와 뉴스 등을 담아 내실 있는 소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http://www.facebook.com/snuac/>

<http://snuacnews.snu.ac.kr>